

한국 신세대의 복식양식  
- 1980년대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

염 혜 정 · 조 규 화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A Study on the Fashion Style of the New Generation in Korea**  
-with reference to the newspaper and magazine in 1980's-

**Hae Jung Yum, Kyu Hwa Ch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1992. 2. 8 접수)

**Abstract**

This study primarily concentrates on the Fashion Style of the New Generation which has come into being in 1980 with reference to the contents of the newspaper and magazine in 1980's.

The New Generation has undergone the social and cultural change under the effect of mass communication, mass consumption brought by the economic development, sports boom promoted during the period of Asian Games and Seoul Olympic Games and the adoption of the policy for the autonomous school uniform. In the process of the social and cultural change, they have the common peculiarity such as sensitivity, authoritarianism and polarity and they have taken an important part in the development of the "Young Fash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fashion styles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as follows;

1. The rising period (1980-1982): The most important peculiarity of the first step can be summed up to the following point. The free fashion style replaced the formal one such as T-shirt or casual wear comes into as a everyday dress. Moreover, many people become interested in the New Fashion which is gradually diversified and high-qualified. As a natural consequence, the lively interest of the people has brought into the appearance and competition of the New Brand in fashion industry.

2. The growing period (1983-1986): Mannish Look, so-called "New Fashion" gained the summit of the fashion and change over conservatively. However, "Mannish Look" have great effect on the Fashion Style until now on. Specially in Korea, "Punk Style" and "Androgynous Look" can be an example among many.

3. The diversifying period (1987-1989): The Fashion Style has developed variously even though the Reactionism takes the lead as the main current of the Korean Fashion. Moreover,

it is noticeable that man comes into the stage as a new fashion group and the fashion market begins to dear in various lines of goods with moderate and low prices. These various aspects can be regarded as diversification in the Fashion Style as the needs in the times and society.

## I. 서 론

한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변화연구에 있어서 복식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sup>1)</sup>. 왜냐하면 사회나 경제가 변화를 맞이하면 그 때까지 큰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형태에 수정이 가해져 생활양식이 변하게 되는데, 복식은 이같은 변화를 최우선적으로 받는 요소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복식은 사회적 조형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갖게되고, 복식이 개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곧 사회적인 연관중에 받을 내딛게 된다<sup>2)</sup>.

특히, 현대에 있어서 문화변동의 역사는 대부분 젊은 층의 반향으로부터 시작되어 젊은이들은 기성인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항상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므로<sup>3)</sup> 현재 그들의 복식에 관한 연구는 곧 현재의 세태현상과 복식양식의 변화양상과도 연결되리라 생각된다.

1980년대 우리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패션의 다양화와 개성화 현상이 일어난 시기였다. TV와 신문등 매스컴에서의 패션과 디자인에 대한 기사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패션의 일반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는 사회 제분야에 걸친 젊은 세대의 부각과 관련되는데, 그들은 정신적인 가치관에서부터 복식을 비롯한 생활의 면에 이르기까지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물론 과거 어느 때에도 젊은 세대는 항상 존재하여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에 지금과는 다른 낯설고 새로운 존재로 비추어 질 때 단지 「젊은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단어가 아닌 좀 더 새롭고 특수화된 호칭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을 「신세대」라고 칭하고 그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일반적 특성을 복식양식과의 관련속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신세대」란 프랑스의 「누보쥘네」(nouveau jeune), 일본의 「신인류(新人類)」<sup>4)</sup>와 같은 의미의 한국의 젊은 집단으로, 조선일보<sup>5)</sup>에서는 고졸 이후 20대 후반까지의 젊은이 즉, 청소년과는 다른 청년기의 연령집단으로 규정짓고, 고학력, 고기술 시대로 되면

서 현대화의 부산물로 등장한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일보<sup>6)</sup>에서는 포괄적인 20대로 다루고 있다. 또한 조규화<sup>7)</sup>는 5.16이후에 태어난 고졸이상으로서 한국경제고도 성장속에서 영상으로 자라난 전쟁과 가난을 모르는 세대로 규정짓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아 본 연구에서는 5.16이후 경제 성장기에 태어나 매스컴과 접하며 자란 세대이면서 인구구성상 가장 큰 집단적 성격을 지니는<sup>8)</sup> 젊은 세대로 규정짓고, 그들의 특징이 그대로 복식에도 반영되었으리라는 전제하에 영패션의 주류라 할 수 있는 고졸이상 20대 중반까지의 층을 중심으로 한 복식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미 사회·문화적 요인과 복식형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 진 바 있다. 가령 「1950년대 이후 한국 패션의 변천과 그 양식」<sup>9)</sup>은 신세대만이 아닌 1950년 이후의 패션 변천에 관한 연구이며,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의복선호도에 관한 연구」<sup>10)</sup>는 설문지에 의한 의식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80년대에 있어 신세대의 구체적인 복식문화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2차대전 후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sup>11)</sup>은 서구 젊은 세대의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된 것으로 한국의 젊은세대의 복식문화를 언급한 것은 없었다. 이미 조선일보<sup>12)</sup>와 한국일보<sup>13)</sup>가 여러 각도에서 그 특성을 다룬 바 있고, 조규화<sup>14)</sup>는 한국 신세대의 패션의식을 설문지에 의해서 유형별로 그 특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80년대 전반에 걸친 신세대 패션양식을 고찰해 본 것으로, 연구방법상 현재의 세태현상에 가장 밀착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국내일간지들 중 신문의 발행부수, 역사, 여론을 구성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석간지에서는 동아일보, 조간지로는 조선일보<sup>15)</sup>, 그리고 패션기사를 타신문에 비해 많이 게재한 한국일보와 일간스포츠의 사회·문화란 기사를 자료로 하였으며 8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패션일간지인 「월간 멋」을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시기와 방법의 면에서 주관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점이 있으나, 한세대의 복식양식을 분석, 정리함으로써 현재 변화과정중인 복식 문화속에서의 위치를 부여하고, 나아가 다음 세대와의 비교, 검토에 도움이 되고

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 II. 신세대 출현의 배경과 그 특성

### 1. 신세대 출현의 배경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밟아 온 우리사회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격동의 시대를 경험해 왔다<sup>16)</sup>. 그리고 이 사회적 여건과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양태, 행동양식, 가치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유발하였다<sup>17)</sup>. 그 중의 하나가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인한 욕구의 세분화와 가치관과 생활의식 변화로 인한 개성화, 다양화 현상으로, '80년대 들어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성장을 보이게 된다.

한국사회에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세계속에서의 한국의 위치가 부각됨과 동시에 스포츠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또한 '80년 컬러 TV의 방영 개시로 시작된 색채의 다양화 현상은 일상생활문화에서 의식구조에 이르기까지 「색채혁명」과 「다양화 사회」를 창출했으며, 「무채색의 시대」에서 「유채색의 시대」로 바꾸어 놓았다. 이 「색채혁명」은 의복뿐 아니라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색채와 디자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패션디자인, 광고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등 디자인 문화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83년부터 실시된 교복자유화 정책은 주니어 패션의 탄생을 가져왔고, 청소년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었다. 그리고 무채색의 획일적인 복장으로 부터의 자유화 경향은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에까지도 영향을 주어 청소년 문화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그밖에도 '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89년 수입자유화 조치는 외국 유명브랜드의 도입을 가속화시켜 패션산업의 다양화와 의생활의 고급화를 가져와 신세대에게도 그 영향이 미쳤다. 또한 '82년 통금해제와 더불어 이들 요소는 과소비풍조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들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젊은 집단인 「신세대」를 등장시키게 되었다.

### 2. 신세대의 일반적 특성

80년대에 신세대의 복식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먼저 신세대의 일반적 특성을 다루기로 한다. 신

세대의 일반적인 특성은 감성주의, 탈권위주의, 양극화 현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1) 감성주의

감성이란 단번에 다른 것, 기성개념을 고집하지 않는 것, 밸런스 감각이 있는 것, 예리한 감각 등으로, 여유 있는 생활과 평화에서 오는 자유와 사람, 물자, 정보의 활발한 교류,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움이 그 배경을 형성한다<sup>18)</sup>. 이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젊은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감성주의적 경향은 현대사회적 특징과 연관되는데, 특히 최근 급성장을 보인 시각문화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그리하여, 신세대는 이 시각문화를 그들의 새로운 문화적 주류로 형성함에 따라 만화<sup>19)</sup>와 광고<sup>20)</sup> 판시업제<sup>21)</sup>를 급성장시켰다. 그 결과 첫째로 일상생활 내에서 「본다」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표면적인」 사항에 집중하게 되었고, 둘째로 「행동하거나 사색하는」 문화가 아닌 이미지 중시현상의 「느끼는」 문화를 급성장시켰다.

#### 2) 탈권위주의

1985년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가 전국의 20~24세의 1천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한국 전체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개인」(26%)을 국가(15.4%)보다 높게 평가했으며, 살아가는 목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하고 사는 것」(53%)을 「경제적 부」(23%), 「사회봉사」(16%)보다 앞세웠고, 「사회적 지위」(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sup>22)</sup>. 이는 신세대의 「소시민적」인 특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남성위주 사상에도 변화가 일어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가족제 붕괴와 출산율 감소 등 사회, 문화적인 요인속에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직업선택에도 이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직업을 생계 유지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자기실현, 개성발휘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역량이 그대로 산출될 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sup>23)</sup>.

#### 3) 양극화 경향

신세대는 대체로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등에서 서로 상반되는 가치체제를 가진다. 이를 이념의 차로 나누어 본다면 이념파와 비이념파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념의 양극화는 그들의 문화 또한 양극화시켜 운동권 학

생과 비운동권 학생은 서적, 언어, 노래, 복장 등에서 판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24)</sup>.

한편, 소비문화에서 문화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상품과 같은 고감각 상품을 선호하는 복합소비, 소모성 소비경향을 지니는가 하면, 전통에 대한 관심에서도 무분별한 외래문화를 배격하고 생동하는 우리 고유의 생활문화를 창조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sup>25)</sup>.

이와같은 경향은 의복에서도 두드러져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글 T셔츠가 유행하고, 한복의 양장화가 보인다. 이는 감각적인 소비문화를 즐기면서도 서민층의 소박한 삶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문물을 충분히 이용하면서도 한국 전통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구조는 하나를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갈등이 아닌 상반되는 가치 체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융통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일종의 표현주의로 묶어지는 이들 특성들은 「자기를 표현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을 가져와, 보고 느끼는 문화를 급성장시켰다. 따라서 그들의 복식관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전개과정과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III. 신세대의 복식

#### 1. 신세대의 미의식

어느 시대에서나 특히 젊은이들은 대담한 자기 표현으로 유행의 추종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 사회의 유행은 그 사회내의 젊은이와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다. 특히, '80년대로 들어서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 다채로운 유행이 형성되었는데, 그들 특유의 미의식의 영향이 컸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감각의 작용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는 것이며,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내에서 시대와 집단의 특징에 따른 시한성과 상대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세대가 가지는 미의식을 종합해 보면, 첫째, 개성을 표현하는 미의식으로, 이는 정형화된 틀을 거부하는 창조적이고 자유로우며 구체적인 개성표현으로서의 미의식이다. 둘째, 기존의 틀을 거부하는 미의식으로, 예를 들면 상품 디자인에서 검은색이 유행하고 강렬한 원색이나 보색끼리의 혼합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세째, 미적기준의 다양성과 짧은 시한성으로, 거의 모든 분야를 거쳐 대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유행이나 경향이 없고, 있다하더라도 곧 진부해져 급속하게 생명력을 잃는 것<sup>26)</sup>이 이를 설명해 준다. 네째, 복제된 개성의 미이다, 현대의복은 상업적인 기획에 의해 만들어지고 매스컴의 수단을 통해서 직접 대중에게 제시되므로<sup>27)</sup> 특정 TV 연예인의 머리모양이나 옷차림이 크게 유행되거나 거의 비슷한 표현방법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개방된 미의식이다. 신세대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향상, 충분한 영양섭취등으로 체격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sup>28)</sup> 이러한 신체적 조건과 함께 올림픽의 개최, 해외여행 자율화등으로 인한 개방적인 사회흐름으로 그들의 미의식도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신세대 복식의 특징

이상의 신세대가 갖는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 복식의 특징을 집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사회속에서 TV, 신문, 잡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복제된 패션의 추구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인기연예인의 복장이 크게 유행되었으며, 서구와 일본등지의 젊은이들의 복식에 시기와 형태면에서 거의 일치되어 간다고 본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80년대 신세대라는 새로운 젊은 층을 형성시켰고, 이 젊은층은 예외없는 속도와 힘으로 일반 복식을 패션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특유의 미의식으로 유행을 선별하여 기성세대와는 다른 독특한 복식문화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의복을 단순히 「입는다」는 개념에 그치지 않고 「놀이의 수단」, 「의사의 표현」등 라이프 스타일 전반까지 그 의미를 확대시켰으며, 다양화되는 사회 속에서 각자의 감성에 의해 주위의 모든 것을 오브제(objet)로서 받아들여 패션화했다. 따라서 캐주얼 웨어에 대한 인식도 「입기편한 옷」이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옷」으로 바뀌었고 보다 넓은 층에 보다 널리 활용되었다.

현재 거리의 패션을 보고 있으면 연령불명의 의복이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크고 험령한 상의에 풍성한 큐롯, 그리고 운동화에 배낭을 맨 차림 등은 연령의 벽을 넘어 성인층까지 확대된 소년, 소녀풍 패션형태이다. 이는 현재 신세대의 가치관의 변화가 패

션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새로운 감성경향이라 생각한다. 자신에게 꼭 맞는 사이즈의 옷이 아닌 언벨런스한 옷을 입는다는 패션의식이 나타나는데 과거 '70년대가 성인을 젊은층이 모방했던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하는 패션경향이었다면, '80년대초 패션에의 스포츠 캐주얼 의복의 도입이라는 시기를 거쳐, '80년대 말에는 나이보다 어려 보이려는 패션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세대 복식의 특징은 10대와 30대까지 그들의 패션 범위안에 끌어 넣어 틴(teen)을 새로운 패션 집단으로 등장시켰으며, 30대도 캐주얼화, 패션화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더욱 확장된 영패션권을 패션 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과 생활상태에 따른 패션 감성별로 세분화시키게 되었다. 여러 가치관이 혼재된 사회 속에서 각자의 감성에 의해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패션으로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뚜렷해지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신세대 복식을 두가지 요인 즉, 교복자율화와 아시안게임, 올림픽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특징의 변화와 당시 유행의 흐름에 의해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은 3기의 전개과정을 가진다.

### 3. 신세대 복식의 전개과정

#### 1) 대두기(1980년·1982년)

이 시기는 개방화와 자율화에 대한 사회적 사건으로 묶어질 수 있다. 우선 '80년 초부터 학원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교복자율화에 대해 찬, 반론이 분분한 가운데 '80년 12월부터는 컬러 TV가 방영되었으며, 「영11」, 「젊음의 행진」등 젊은이들 대상으로 한 쇼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다. 그리고 '81년에는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이 차례로 유치되는 가운데, 「국풍81」의 개최로 젊은이들 사이에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그 이듬해인 '82년에는 통금해제와 함께 프로야구가 개막되었다.

이상의 사회적 경향들은 결국 변화에 대한 감각이 빠른 젊은층 문화를 부각시키게 되었으며, 교복자율화로 새롭게 등장한 청소년층이 그 세력을 더하며 당시 사회적 무드와 결부된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키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의복에서도 자유롭고 독자적인 옷차림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의류업체들도 마침내 18~25세라는 새로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을 세분화, 다양

화시키기 시작했다<sup>29)</sup>.

이 시기의 복식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타운 웨어(town wear)에 캐주얼 아이템(casual item)이 등장

나. T셔츠의 다양화

다. 등산용 누비 재킷의 평상복화(그림 1)

라. 배기 팬츠(baggy pants)를 비롯한 바지의 다양화(그림 2)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캐주얼 웨어가 일반적으로 폭넓게 사용된 것이 특징적이다. 즉, '70년대까지 캐주얼 웨어는 한정된 층에서나 입는 비교적 값싼 레저 웨어라는 일반적 개념에서 벗어나 고급 기성복으로 입는 용도도 다양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시기라 할수 있다(그림 1, 2).

#### 2) 성장기(1983년-1986년)

이 시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복자율화 정책이 실시된 '83년을 기점으로 하여 외국 젊은이들의 감각적인 문화가 유입되면서 인기를 모아간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예로 뉴 웨이브(New Wave)조의 음악과 패션의 유행<sup>30)</sup> 그리고 일본잡지의 범람<sup>31)</sup>을 들 수 있는데, 그 영향으로 한국형 펑크족이 이 시기에 등장했다<sup>32)</sup>. 한편 빌리지, 포스트카드 등 체인점 형태의 패션 전문점이 '83년부터 나타났는데, 교복 자율화로 사복을 입기 시작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비교적 싼 값과 패션감각을 특징으로 한 새로운 형태가 호응을 얻으며 그 영역을 넓혀갔다. 그 외에



(그림 1) 누비재킷, 「여성중앙」, 1980년 12월



[그림 2] 배기 팬츠(일명 디스코 바지), 「여성중앙」, 1982년 4월

도 아트박스, 바론손 등의 팬시산업의 본격화를 들 수 있으며, 지하철 2, 3, 4호선이 차례로 개통되었다.

이 시기의 일반적인 복식의 흐름을 보면, '83년경부터 '84년에 걸친 무채색위주의 남성적인 디자인이 주류를 이룬 매니시 룩(mannish look)과 '85년경부터 시작된 어깨에 두꺼운 패드를 넣은 역삼각형 실루엣을 들 수 있다. 이때의 매니시룩은 잇세이 미야케, 야마모토 요지 등을 중심으로한 전 세계적 재패니스 룩(Japanese look)의 영향이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한 신세대의 복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매니시 룩의 유행과 비구조적인 착장으로의 변화  
(그림 3)

- 나. 여름용 소재로서 마직의 유행
- 다. 레이어드 룩(layered look)의 등장
- 라. 다운 파카(down parka)와 진(jean)의 패션화



[그림 3] 점퍼 스타일의 조끼, 「월간 멋」, 1984년 7월



[그림 4] 앤드로지너스 룩, 「월간 멋」, 1985년 1월

(그림 4)

마, 망사, 레이스, 레그워머(leg warmer), 배낭, 컬러 스타킹(color stocking)등 다양한 소품등의 패션화(그림 5)

이상으로 간추려 본 이 시기의 신세대 복식은 한마디로 의복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시기라 할 수 있다. 소위 뉴 웨이브 패션이 인기를 모으며, 매니시 룩이 일반화된 시기로, 이는 지금까지의 복식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한국형 펑크족이 등장했는가 하면, 앤드로지너스(androgyne)적인 특성(그림 4)으로도 이어졌다. 또한 가지각색의 소품들이 새로운 패션소재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이것」과 「저것」을 서로 코디네이트(coordinate)시킨다는 토타패션(total fashion)으로서의 패션 감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그림 5).

3) 다양화기(1987년-1989년)

'88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연이은 스포츠 행사로 인한 각종 스포츠 붐과 각종 경기에서 화제가 되었던 「영파워」 분위기로 인한 댄스뮤직붐을 들



[그림 5] 레그워머, 「월간 멋」, 1984년 12월

수 있다. 이는 젊은층 문화의 일반화를 의미하는데, 그 외에도 「신세대」, 「신인간」, 「신인류」등 젊은 세대와 그들의 문화가 화제를 모으며, 각 신문사에서 장기간에 걸친 특집 기사를 연재한 것이 이를 설명해 준다.

한편 「고감도 사회」, 「다양화 사회」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었는데, 유통업계에서는 '88년 잠실 롯데월드와 무역센터, 현대 백화점 등 대형 쇼핑센터와 진로 도매센터 등 도매형태의 쇼핑센터가 차례로 개점하여, 차차 쇼핑센터가 생활문화 타운으로 대확화, 다양화 되는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패션산업면에서도 의류브랜드가 생활 가치관에 대한 의식의 다양화를 겪으면서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지금까지 한가지 모습만 보여왔던 젊은층의 생활 스타일이 다양화와 욕구의 세분화로 인해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에 따라 기성복 업체에서도 연령, 취향, 생활 스타일에 따른 브랜드의 세분화를 꾀하게 되었다. 그밖에, 남성복과 아동복의 패션화 현상을 들 수 있으며, 저가와 고가로 양분되어 있던 의류시장에 이랜드(E Land)를 비롯한 중, 저가 상품이 나오므로써 가격대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이다.

이 시기는 '85, '86년부터 경향을 보여왔던 페미닌 감각의 부드러운 실루엣이 전반적인 주류를 이룬 시기로, 보디 컨셔스(body conscious)와 유럽 정통패션으로의 회귀로 인한 '50년대 풍의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뉴 룩(New Look)스타일에 '60년대 중반의 미니가 유행했다.

다양화기에 있어서의 신세대의 복식을 유행의 특성에 따라 제 1기(1987년~1988년)와 제 2기(1989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 1기(1987~1988년)

- (1) 복고풍의 유행(그림 6)
- (2) 스노 진(snow jean)과 가죽제품의 유행(그림 7)
- (3) 코디네이트 패션의 등장(그림 8)

나. 제 2기(1989년)

- (1) 내추럴 실루엣(natural silhouette)경향(그림 9)
- (2) 민속풍의 도입
- (3) 아메리칸 캐주얼의 유행

이 시기의 신세대 복식의 특징은 「다양한 사회에 따른 다양한 패션의 대두」라 할 수 있다. 즉 옷을 입는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추어 디자이너들이 각양각색의 옷을 만들어 낸 시기로, 그에 따라 사람들은 폭넓은 선택의 자



[그림 6] 피트 앤드 플레이어 재킷 「월간 멋」, 1987년 10월



[그림 7] 마블 가죽 점퍼, 「월간 멋」, 1987년 10월



[그림 8] 코디네이트 패션 베네통 봄, 「월간 멋」, 1988년 11월



[그림 9] 투명소재의 스카프와 내추럴 실루엣, 「월간 멋」, 1989년 4월





[그림 10] 진소재의 패미닌 감각의 패션, 「월간 멋」, 1987년 6월

유속에서 개성과 감각에 맞는 패션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이는 이시기의 전반적인 패션 경향이었던 북고풍과 일반적인 캐주얼 웨어 모두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즉 표현의 다양화가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연섬유와 진 일색이었던 캐주얼웨어의 소재에 새로이 가죽과 시폰 등이 가해졌으며, 파스텔 컬러, 비비드 컬러, 형광색 등 색상의 다양화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진」이라는 기존의 아이템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패션성을 나타내려 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중 하나이다(그림 10).

#### IV. 결론 및 제의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국제화」, 「자율화」, 「정보화」 경향이 컸던 1980년대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등장한 새로운 젊은 집단을 신세대라 칭하고 그들의 복식양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세대의 복식양식을 분석, 정리함으로써 현재 변화과정중인 복식문화속에서의 위치를 부여하고 나아가 다음 세대와의 비교, 검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신세대는 개성을 표현하는 미의식, 기존의 틀을 거부하는 미의식, 미적기준의 다양성과 짧은 시한성, 복제된 개성의 미, 개방된 미의식등을 가지며 복식양식을 형성하였다. 그 특징으로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한 복제된 패션의 추구가 나타났으며, 패션의 생활스타일 전반까지의 표현수단으로 그 의미를 확대시킴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전개과정을 보면, 대두기(1980년~1982년)에는 캐주얼 웨어가 일반화되며 고급기성복으로 입는 용도도 다양화된다는 의식이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으며, 성장기(1983년~1986년)에는 뉴웨이브인 매니시룩의 유행으로 지금까지의 복식생활에 많은 변화가 초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핑크족이 등장하고 앤드로지너스적인 특성이 나타났으며 토탈패션의 패션감각이 등장하였다. 다양화기(1987년~1989년)에는 표현의 다양화가 시도되면서 소재와 색상에서 다양한 변화가 보였다.

이상으로 간추려 본 신세대 복식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 일본 등지의 선진국에서도 보이는 특성으로, 이는 국제화와 개방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속에서도 우리의 것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한글 T셔츠와 개량한복의 유행이 있는데, 이는 전통화와 국제화에서의 융통성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욱 개방화되어갈 사회속에서 전통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국제화된 감각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복식문화를 확립해야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줄 생활문화산업으로서의 복식산업과 보다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복식양식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죠르조·로마쯔이(編)大石敏雄(譯)(1972), *모드는語る*, 사이マル出版會, p. 65
- 2) 曹圭和(1982), *복식미학*, 수학사, p. 21
- 3) 千石 保(1985), *現代若者論*, 弘文堂, p. 13
- 4) 1985년 「아사히저널」지에 「지쿠시메츠야」의 「젊은이 탐험 신인류의 기수들」이 장기연재되면서 일반화된 것으로, 1960년대 이후 태어나 TV 속에서 자라나 갖가지 매스컴에 접하고 있는 가난을 모르는 세대를 의미한다.
- 5) 「신인간」 조선일보(1987. 1. 1-3. 4, 33회 시리즈)
- 6)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일보(1988. 6. 29)

- 1989. 10. 25. 60회 시리즈)
- 7) 曹圭和(1988), 韓國戰後世代のライスタイル類型とファッション意識, 『アパレル研究』 14, P P. 216-217
  - 8)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총인구 4천4백2만여명중 20대는 20.6%인 8백31만여명으로 총인구의 5분의 1이나 되는 인구구성상 가장 큰 집단의 성격을 지닌다.
  - 9) 김수정(1989), “1950년대 이후 한국패션의 변천과 그 양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10) 이선재(1982),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의복선호도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제 6 권 제 1 호, pp. 39-50
  - 11) 김민자(1987), “2차대전 후 청소년 하위 문화 스타일”, 『의류학회지』 제11권 제 2 호, pp. 69-90
  - 12) “신인간” 조선일보(1987. 1. 1-3. 4, 33회 시리즈)
  - 13)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일보(1988. 6. 29-1989. 10. 25. 60회 시리즈)
  - 14) 曹圭和(1990), 韓國新世代のファッション意識とその類型, 『アパレル研究』 18, pp. 179-226
  - 15) 허은선(1991), “1980년대 의생활 관련 기사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16) 안청시, 최일섭(1987),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참고」, 집문당, p. 9
  - 17) 안청시, 최일섭(1987),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집문당, p. 10
  - 18) 青木武一(編)(1989), これが感性だ, マネジメント社, p. 27
  - 19) 조선일보, p. 11, (1989.3.31)
  - 20) 조선일보, p. 22, (1989.3.5)
  - 21) 「월간 멋」, p. 238, (1987.12)
  - 22) 한국일보, (1988. 6. 29)
  - 23) 한국일보, (1989. 7. 5)
  - 24) 한국일보, (1988. 8. 3)
  - 25) 한국일보, (1988. 11. 2)
  - 26) 한국일보, (1989. 6. 14)
  - 27) 曹圭和(1982), 복식미학, 수학사, pp. 245-246
  - 28) 1988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한국 통계연감에 의하면 고3 남학생의 평균 신장이 '81년 167.7 cm 이던 것이 '86년 169.2 cm로 5년 사이에 2 cm 가까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 29) 조선일보, p. 5, (1980.4.3)
  - 30) 조선일보, p. 6, (1984.2.5)
  - 31) 동아일보, p. 3, (1984.10.24)
  - 32) 동아일보, p. 7, (1984.10.10)